

공기업 '빛잔치' 이자는 '눈덩이'

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 등 5년간 이자만 1400억

도시철도공사는 되레 임금인상

광주와 전남지역 공기업들이 빛 잔치를 벌이면서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 지난 5년간 '시민 혈세'로 지출한 이자만 1400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부채를 낮추려는 노력은커녕 되레 민간위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임금을 10% 가까이 인상하는 등 민선시대 대표적 병폐로 꼽히는 '인기 얻기식' 방만경영에 나서 논란이다.

지난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마포갑) 의원과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포럼에 따르면 부채에 따른 이자로 전남개발공사는 2010년부터 5년간 1093억원을 지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011년 74억원에서 2013년 47억원, 지난해 40억원 등 감소 추세에 있지만, 5년간 242억원의 이자를 냈다.

하루 평균 1억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83억원을 이자로 지출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시로부터 적자 보전을 위해 2013년 390억원, 2014년 398억원, 올해 400억원 등 매년 막대한 지원을 지출받고 있다.

이 같은 재정지원에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민선 6기 들어 비정규직(민간위

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내세워 직원 인건비 올리기에 나서는 등 방만 경영으로 일관해 반칙을 사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 근로자들은 인건비 추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31일로 예정됐던 '직접 고용 사원증 수여식'도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사원증 수여를 직접 하려 했지만 이들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일부터 민간위탁 신분인 역무·미화 등 4개 분야 276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 한편 역무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191만원에서 18만원(9.5%) 오른 209만원, 미화원은 177만원에서 12만원(6.8%) 오른 189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매년 1인당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반면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의 월 급여가 8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들의 신분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논란이다.

이들은 민간위탁 개인사업자인 9명의 역장과 2년마다 재계약을 맺는 민간위탁 용역직 신분이지만, 광주시는 민선 6기들어 전국 최초로 이들을 민간 용역직이 아닌 간접 근로자로 분류하고, 직접 고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선 민간용역직 근로자의 경우 간접근로자는커녕 광주시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민간위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고용노동부에선 인정하지 않는 반면 광주시 조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채는 전남개발공사 6259억원, 광주도시공사 6185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05억원 등 1조2749억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9월 4일 역사적 개관 문화전당 100% 즐기

▶ 2·12·13면

경철, 백마산 특혜 '반쪽수사' ▶ 6면

KIA·한화, 청주서 '5강 싸움' ▶ 20면

2016학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일 10.2(목) 문의 (062) 605-1114

本 社 人 事

▶ 박치경 : 수석설위원 (9월 1일자)

금남로, 주말엔 車 없는 거리 된다

〈금남공원~전일빌딩〉

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낮 12시~밤 10시 차량통제
공연·전시 문화행사 즐기며 마음껏 걷기 ... 연장 방안도 검토

앞으로 매주 토요일이면 '차(車) 걱정 없이 문화·예술·역사를 품고 있는 금남로'를 따라 걸을 수 있게 됐다.

당장, 오는 5일부터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금남로에서 펼쳐지는 온갖 공연·전시 문화 행사를 마음껏 즐기며 걸을 수 있게 됐다. 시민은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인근 상점들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동구는 광주시와 연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및 관광 붐 조성을 위한 '금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동구가 밝힌 금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광주의 대표적 거리이면서 역사적으로도 5·18 민주화

쟁의 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장소인 금남로를 활용한 안전하고 걷기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5일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전일빌딩 구간 왕복 5차선(길이 518m·너비 40m)이 '차 없는 거리'로 바뀐다. 한 두차례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다. 우선 올해 말(12월 26일)까지 도심 한 가운데가 '보행자 전용 지구'로 지정되지만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주 토요일이면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해 안전하게 편안

한 보행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동구는 시비 3억 원을 들여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맞춰 예술의 거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청소년의 거리·먹자골목 등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에 시민버스킹·아트마켓·급속공예 및 도장 만들기·먹거리 만들기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객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문화전당의 빛 아시아 비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31일 밤 전체 시설의 조명을 밝히며 '문화수도'의 화려한 용비를 알리고 있다. 문화전당은 지난 2005년 첫 삼을 든 후 10년 만인 4일 개관한다. 문화전당 건립에는 모두 6691억원이 투입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천정배, 이르면 내주 초 창당 선언

“늦어도 추석 이전 창당 목표” ... 신진인사 전면 배치 신당효과 극대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조만간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는 등 창당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신당 창당으로 방침을 정하고 늦어도 추석 이전, 빠르면 내주 초 창당 선언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르면 내주 초 신당 구상을 밝힌 뒤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6일에는 천 의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빛다

울 포럼' 창립총회를 여는 등 세 확대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아권 내에서는 천 의원이 추석 연휴 직전인 25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 때 신당에 참여할 인사들의 윤곽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 의원은 창당 초기에는 기성 정치인보다 유망 출신 등 신진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신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정배 신당”의 출현이 내년 총선을 앞둔 아권 지형에 어떤 파급력을 불러올지

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신민당'(가칭)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천 의원의 신당마저 출현한다면 본격적인 신당 창당 경쟁바람이 불면서 아권의 이합집산이 이뤄져 아권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이 주류, 비주류 간 접미한 대립 속에 당 내부에 휩싸여 있는 데다 일부 인사들의 경우 탈당을 공언해온 터라 천정배발(發) 신당이 새정치연합의

원심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상임고문의 복귀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주류와 대립각을 세운 비주류 그룹 일부가 천 의원과 손잡고 내년 총선에 대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다음달 1일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비주류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반면 '천정배 신당'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신당이 파급력을 지니려면 현역 의원들의 대거 동참이 이뤄져야 하지만 신당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탈당을 감수하면서까지 창당에 몸을 실을 의원들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경남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나의 잊을 수 없는 귀향

“추석은 유년의 그리움으로 달려온다”

“추석은 만나라고 있는 거야”

광복70년 특집

민족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 그 말은 어디서 왔을까, 어원백설 '몽클한 감동' 날로 새로워지는 아리랑 무대들 4회 광주아리랑대축전 9월 개막

추석 기획

추석은 유년의 그리움으로 달려온다

추석은 만나라고 있는 거야

노중훈의 세계 문화도시 기행록

헤밍웨이와 게바라로 기억되는 도시, 쿠바 아바나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 국내외 현장을 가다중

역사와 추억으로 사랑받는 쇼팽단지, 보스턴 퀸시마켓

스타 데이트

“연기 힘들지만 새로운 나 발견”

“오 나의 귀신님”서 음탕녀 연기 박보영

예향 초대석

민중미술 1세대 작가 임옥상

“광주는 내 예술의 고향”

남도의 장인들

정성과 솜씨로 차리는 희로애락의 깊은 맛

남도의례음식장 이애섭

문학 화제

고흥군 '송수권 시문학상' 제정 계기 송수권 시인과 나는 문학 이야기

문화 & 문화인

‘보성 덩벙이’ 맥 잇는 도예가 송기진

공인 화제

국창의 예술혼 잇는 국악인 등용문, 23회 임방울국악제

정운수의 스포츠인사이드

동성에 차별 반대운동, 인권운동 이끄는 나브라틸로바

문화 화제

황혼의 뜨거운 국악 열정, '전남실버국악 예술단' 창단

우리동네를 소개합니다

문화행기 가득한 각동동 사회문화마을

장성

오늘에 있는 드넓은 선비정신

황룡기운 가득 '별도우터'